

광주시립사진전시관 개관 5년만에 문 닫는다

지난 2016년 개관한 광주시립사진전시관(이하 사진전시관)이 문을 닫는다. 사진전시관은 7월부터 광주시립예술단체의 종합연습실과 파트연습실로 사용될 예정이다.

26일 광주시립미술관과 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사진전시관은 오는 6월27일까지 열리는 이정록 작가의 전시 '꿈, 일상'을 끝으로 개관 4년 8개월만에 문을 닫는다. 전국 최초의 공립사진미술관인 사진전시관은 유휴공간이었던 광주문화예술회관 내 옛 시립미술관 자리에 문을 열고 개막 전 '예향·의향 광주를 본다·노랑나비는 새벽에 날다'를 비롯해 지금까지 모두 19차례 전시회를 개최해왔다.

사진계는 5년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공간을 갑자기 없애면서 지역 사진계와 어떤 소통 과정도 거치지 않고, 대안 마련도 없이 폐관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시관을 운영하는 광주시립미술관은 뒤늦게 공론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진전시관 폐관 저지를 위한 광주사진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하선)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만들어졌고, 전문인력도 없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별다른 문제 없이 운영돼 온 전시장을 갑자기 없애는 건 성급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광주비엔날레 등에서 보듯 사진 분야가 예술의 큰 흐름으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진전시관을 운영하는 광주시립미술관이 폐관과 관련, 어떤 역할도 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항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계는 현 전시관 유지나 대안 공간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관 폐관은 광주혁신추진위 '제2차 시장혁신 권고문'에 따라 시립예술단 활성화 및 단원들 기량 향상을 위한 연습 환경 조성, 종합연습실 확보 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사진전시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광주문화재단은 적정 공간으로 사진전시관을 활용키로 하고 광주시, 시립미술관 등과 논의 과정을 거쳤다.

회관측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올해는 별도의 리모델링 필요없는 연습 공간으로 활용한다. 교향악단 등 각 단체의 요구가 쏟아져 조만간 단체 예술감독과 운영실장 회의를 거쳐 공간 운영방침을



광주시립사진전시관이 개관 4년 8개월만에 문을 닫게 돼 지역 사진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사진전시관에서 열린 리얼천 작가 작품전.

이정록 전시 마지막으로 7월부터 광주시립예술단체 연습실로 사용 "대안없는 폐관" 사진계 반발...시립미술관 뒤늦게 공청회 등 의견수렴

확정할 예정이며 내년 본격적인 리모델링을 계획 중이다.

사실, 시립사진관 개관은 전일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게 중론이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특정 분야 전문 공간을 운영하는 데 대해 타 장르 단체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문을 열었다.

이번 폐관과 관련, 시정을 향한 방문한 사진작가들은 성명서를 통해 "시 간부로부터 예술단의 연습장이 부족하고, 타 예술단체가 사진분야 특혜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전시관을 폐관한다는 말과 함께 전일 시장이 만든 공간이어서 없앤다는 말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운영을 맡아온 광주시립미술관은 사진전시관이 우선 시 상시 누수가 발생해 항온항습 설비 미비 등 전시장으로 적합하지 않아 고민해왔다. 또 문예회관에 자리하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연이 없는 주간 시간대에 1일 평균 관람객이 10명에 그치는 등 전시관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여기서 전시 관련 예산도 미미하고 사진 전문 큐레이터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전문가가 없는 상황도 계속돼 소유권을 갖고 있는 문예회관의 의견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립미술관은 지역 미술계와의 사전 소통이나 대안 마련 등에 소홀히 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전시관에서 진행됐던 전시는 본관과 하정웅미술관, 서울 GJ갤러리 등에서 적극 수용, 사진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은 "미술과 사진의 경계가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향후 공청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등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용전시관 확보 문제는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 미술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우곡지사 장흥 위원량 '한시작품' 발굴

장흥문화원과 해동암각문연구회는 지난 25일 회은 위원량(1882-1945)의 한시작품 1건을 증손대에서 발굴했다고 밝혔다.

회은 위원량은 장흥군 기동마을의 토반인 장흥위씨 가문에서 태어났다. 청년 29세 때 한일합병의 국치를 당하자 울분을 토로하며 수리봉 정상의 암벽에 '망곡서' 한시 작품을 새겼다. 또한 인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장흥위씨 가문의 대소사에 적극 희생했다.

부산면사무소 옆에 위치한 장흥위씨 3세효열각을 건립한 사람도 회은 위원량이다. 그 같은 공적

을 기리기 위해 장흥위씨 장전문중과 지역유림에서는 '회은 위원량 중건묘각 표창비'와 '전참봉 위공원량 선행비'를 세웠다. 부산면 용동마을의 '위원량기념비'도 수로 공사비를 희사한 것에 대한 공적비다. 그동안 기념비가 방치된 채 훼손되어 판독이 어려울 정도였지만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판독을 마쳤다.

'기념비'에는 '물길을 가로막은 바위는 깎아내고 자갈들을 잘 쌓아서 수로를 만들었으며 물이 마르는 일이 없도록 해 농사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이번에 회은의 증손대에서 발견된 한시 초고는 기념비의 내용과 부합한다.

한편 흥순석 해동암각문연구회 회장은 "향후 회은의 시문집이 발견된다면 일제강점기 우곡지사로서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시문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 무대에

빛소리오페라단, 29일 광주아트홀

오페라 '마술피리', '버섯피자', 창작오페라 '꽃지어 꽃 피고', '학동엄마' 등 다양한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온 사단법인 빛소리오페라단이 이번에는 '코지 판 투테'를 선보인다. 29일 오후 3시 광주아트홀.

'코지 판 투테'는 이날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만날 수 있다. 1999년 창단한 빛소리오페라단은 지금까지 정기공연을 비롯해 순회 및 초청공연을 통해 관객들에게 폭 넓은 음악문화 향유의 기회를 선사하고 있다.

이날 선보일 '코지 판 투테'는 우리나라 말로 '여자는 다 그래'라는 뜻이며 연인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친구의 약혼녀를 서로 유혹하는 내용이다. 남녀의 미묘한 심리를 다루며, 19세기 당시 주제가 가볍고 사건 전개가 장난스럽다는 이유로 혹평을 받기도 했지만, 모차르트의 후기 작품 중 빼놓을 수 없는 대표작이다.



소프라노 장희정



바리톤 김대수

빛소리오페라단 최덕식 단장이 총감독을 맡았고, 박미에 광주대 교수가 연출과 지휘로 참여한 다. 휘오르딜리지 역에는 소프라노 장희정이 출연하고, 도라벨라는 소프라노 윤희정이 연기한다. 웨란도는 테너 장호영이, 굴리엘모는 바리톤 김대수가 각각 맡았다. 이외에도 소프라노 박정연, 바리톤 권용만, 피아노 천현주, 엘렉트 장희경 등이 무대에 오른다. 무료관람. 문의 062-227-744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프랑스 여자' 들꽃영화상 여우주연상·촬영상

김희정(사진) 조선대학교 글로벌인문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가 각본과 연출을 맡은 영화 '프랑스 여자'가 지난 21일 열린 제8회 들꽃영화상에서 여우주연상과 촬영상을 수상했다.

들꽃영화상은 작품성 있는 한국 독립·저예산 영화들을 대상으로 시상하는 영화상이다. '프랑스 여자'는 배우를 꿈꾸며 파리로 떠난 '이미라'가 2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지난 기억을 떠올리고 과거와 현재를 만나며 꿈과 현실이 교차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감각적인 연출과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들꽃영화상에서 영화 '프랑스 여자'는 시나리오, 감독, 여우주연상, 촬영상 등 4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주연 '이미라'역을 맡은 김호정이 여우주연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박정훈 영화감독은 뛰어난



영성미를 높이 평가받아 촬영상을 받았다. 김희정 교수는 "조선대에 임용된 해인 2018년도에 제작한 '프랑스 여자'가 이런 좋은 성과가 있어 더욱 뜻깊다"며 "이 영화는 주인공 미라가 핵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배우 김호정 씨가 여우주연상을 받아 의미가 크고, 저와 세 편의 영화를 함께 작업한 박정훈 촬영감독의 촬영상 수상도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김희정 교수는 내년 초 차기작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를 광주에서 촬영할 계획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전남대 HK+2 감성인문학연구단 학술대회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이성원 교수) HK+2 감성인문학연구단의 학술대회가 28일 오후 1시 ZOOM을 통한 화상회의로 개최된다. '호남의 지역 횡단적 감성 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쟁'과 '죽음'이라는 키워드를 매개로 지역횡단적 감성 주제의 형성 가능성에 대해 탐색한다.

주요 발표는 '5·18목격자들의 집단트라우마와 지역횡단적 감성 주제의 형성' (김명희 경상대),

'감성적 주제와 횡단지역성' (김기성 전남대), '절의와 타자성 그리고 호남' (김경호 전남대), '한국전쟁 후 호남에 정착한 월남민의 경계 경험과 횡단적 감성' (김아람 한림대), '제노사이드, 그 절명의 감성에 의한 로컬의 동위화' (최혜경 전남대), '1991년 5월, 죽음의 정치와 감성적 주제' (김봉국 전남대) 등이 있을 예정이다. 문의 062-530-271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제는 내일에 투자합니다!

최소금액 500만원 투자로
안정적인 재테크

내일을 위한 보험! 안정적인 고수의 투자!
투자만으로 수목장 자연장지를 선분양

은행이자

갈수록 떨어지는 금리
이제는 마이너스 금리시대
평균 31~51만원

부동산 투자

수요와 공급의 역전
텅텅 비어버린 부동산들
평균 30~50만원
(임대되었을시)

친환경장묘문화(주)투자

안전성 보장
실제 운영하는 수목장의
장영장지를 분양도 받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미래형 재테크

친환경장묘문화(주) ☎ 062) 412-2800